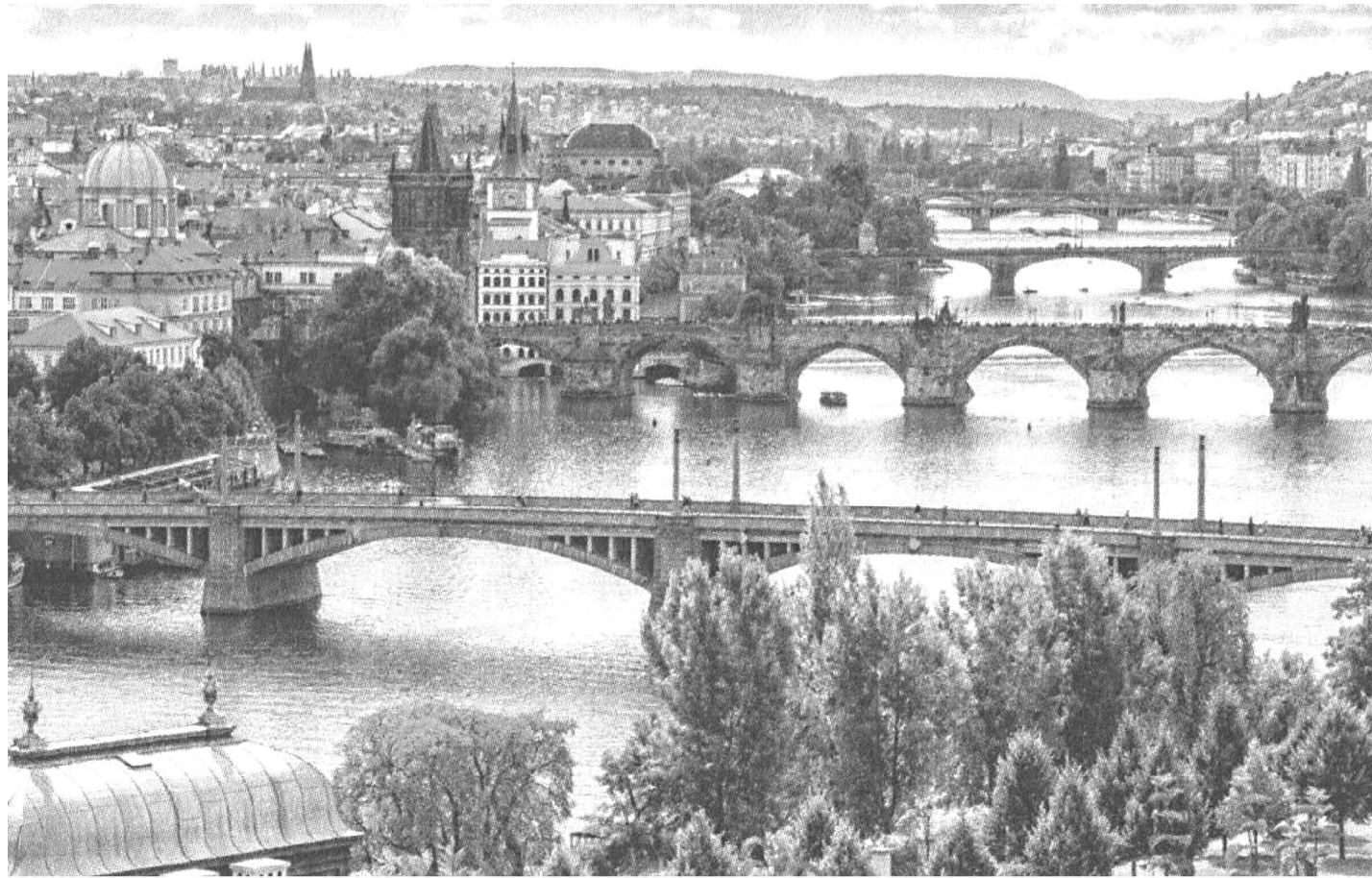




프라하 구시가 광장▶



여행, 알고 떠나면 '재미 두 배'

가족이 함께 읽는 '지구 여행자의 도시 탐험' 로마·파리·뉴욕 등 13개 도시 종합 안내서

연휴나 명절이 되면 시골 고향집에 갔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엔 해외여행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행도 알아야 가는 법.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니는 시대에 걸 맞는 13개 도시안내서가 나왔다.

로마, 파리, 프라하, 뉴욕 등 평소 가고 싶지만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도시들을 책으로 미리 접해 볼 수 있게 됐다. 책은 역사와, 건축, 예술, 음악, 정치, 환경, 성장 등 특징별로 정리했으며 각 도시별 역사와 문화, 사진들을 볼 수 있다. 덕분에 꼭 여행 목적이 아니라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미리 알고 가면 여행의 재미는 배가 되고, 교생은 절반이 된다. 이 책은 도시의 역사로 시작한다. 도시별 역사를 간단명료하게 소개해 준다. 정치, 예

술, 음악, 패션 등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역사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특히, 중간 중간 보이는 '인물 이야기' 코너에서는 황제와 여황제, 작가, 건축가와 같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까지 한번에 살펴 볼 수 있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와 프라하의 카를 4세 왕,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한 페이지의 분량으로 중요한 접단 설명과 있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불거리 또한 어느 여행안내서 못지않게 잘 설명돼 있다. 계획 짜기 어려운 사람들은 책에서 소개해준 불거리를 중심으로 여행을 즐기는 것도 추천한다. 다른 여행안내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단순히 명소 소개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일화나 역사, 의미 등을 곁들여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꼭 한 번 가 보고 싶다는 욕구를 높여준다.

또, 저자 박동석은 본문 말미에 직접 여행하면서 느꼈던 점과 이 도시를 추천하는 이

유, 본문에는 실지 못했던 내용을 실어 부족한 점을 채웠다. 다만, 사진별로 장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 점은 조금 불편하다.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는 사진으로 확 사로잡은 시선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데 어려움을 준다.

각박하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구 여행자의 도시 탐험'으로 여행을 꿈꿔보자. 공부도 하면서 편편히 여행 계획을 짜다보면 잠시나마 취업, 결혼, 직장생활 등 어깨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간된 책이지만 어른이 읽어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도시안내서다. 책값. 252쪽. 1만3,000원.

/이보람 기자



불교도의 5·18 민주화운동 증언

'구술생애사로 본 5·18 기억과 역사-불교·원불교 편'

불제자와 불교도의 5·18 민주화운동 증언을 모은 책이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이하 기억과 역사) 8-불교·원불교' 편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기억과 역사는 5·18에 참여하거나 목격 한 불제자와 불교도의 구술을 채록했다. 당

시 광주 상황과 시민사회 활동, 5·18이 구술자에게 준 영향과 소회, 희망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책은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불교편에는 진제인(성연 스님·증심사), 이광영(진각 스님), 김동수 열사, 박행삼, 김정환(의연 스님·백양사), 김호근, 김형귀, 김광수, 정철

(정의행 법사) 등의 구술이 담겼다.

2부 원불교편에는 고 김봉진(김현 교무), 이순주(선조 교무), 함규수 열사, 한상석, 김광재, 양석호 등의 증언을 수록했다.

재단은 사전 조사를 거쳐 해당 구술자 신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필요한 경우 조사와 인터뷰를 다시 진행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완했다.

기억과 역사 시리즈는 2006년 교육가 편을 시작으로 사회운동가 편, 농민운동가 편, 공직자 편, 전주교편, 사회활동가 편, 기독교 편 등이 나왔다.

/연합뉴스

새로 나온 책

제대로 알면 기적처럼 낫는 디스크

◇허리 디스크 알면 완치 모르면 불치=그간 직접 디스크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점과 환자가 꼭 알아야 할 척추질환의 주요 포인트들을 알기 쉽게 한 권에 풀어 담았다. 저자인통기 박사는 허리 디스크 완치는 환자에게 달렸다고 말한다. 의사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 디스크는 환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최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한 병원 선택 방법부터 실제 사례 등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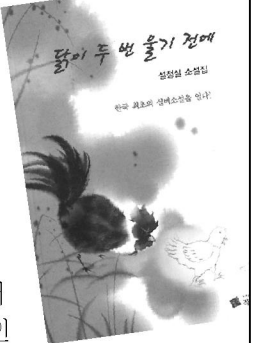
느낌이있는책. 276쪽. 1만4,800원.



노인세대의 갈등과 현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살버소살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이 책은 우리사회의 노인세대가 겪는 다양한 현실들을 보여준다.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부양의 책임이 깊고 그로 인한 갈등과 병합, 실생활들이 맞물려 큰 고민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에 따른 복지가 부족하다. 이처럼 아지는 의면당하고 있는 노인세대의 갈등을 과감하게 다룬 이 책은 무거운 문제를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인들의 모습으로 밝게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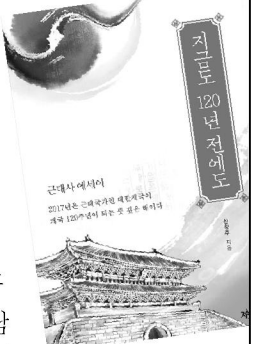
작가마을. 384쪽. 1만3,000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도 120년 전에도=1897년 대한제국수립 후 120년이 지난 지금의 국가적 상황이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고흥 출신 저자 신장주는 다시는 나라 잃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회상과 애국지사들의 활동, 그리고 반민족행위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빈곤한 생활을 하는 비정규직, 음지에서 일해도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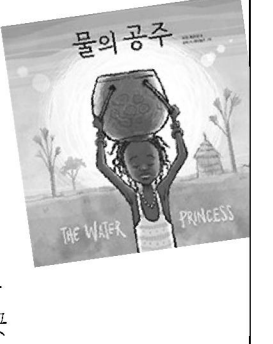
지식과감성. 325쪽. 1만3,000원.



깨끗한 물이 마시고 싶어요

◇물의 공주=남마다 물을 뜨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했던 조지 바디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길러 먼 길을 걷는 주인공 '기기'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끝없이 흐르는 아프리카를 꿈꾼다. 힘들게 물을 길러와 겨우 한 모금 마시는 물도 오염돼 있다. 우리는 물 없이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의 소중함을 모른다. 깨끗한 물을 갈망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떠올리며 물의 소중함도 같이 일깨워보자.

크레용하우스. 40쪽. 1만3,000원.



/이보람 기자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1 - 1번지 - 49평
- 1260 - 2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까지 최고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 H.010-3605-5000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6400만원 (평당5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급매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제일 오피스텔
- 20층중 17층, 29평
- 사무실전용, 전망최고
- 내부 인테리어 시설
- 시세 - 8500만원
- 급매 - 6500만원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50만원 포함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나주,싼 근린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4200만원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 H. 010-3605-5000